

## 눈물로 이루는 치유의 한 마당 -박완서의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

한혜경 · 문학평론가,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

### 1. 박완서라는 이름

이청준 선생, 박경리 선생에 이어 박완서 선생까지 가시고 나니 또 한 분의 어른이 가셨구나 하는 마음에 한없이 쓸쓸하다.

박완서 선생을 처음 접한 것은 대학에 들어와서다. 대학생이 되어 이런 저런 자유의 맛을 음미하고 있던 나의 눈에 『문학사상』에 연재 중인 <도시의 흉년>이란 소설이 들어왔다.

겉으로 조신한 편이었지만 내심 파격적인 일탈을 꿈꾸는 문학소녀였던 나에게 <도시의 흉년>은 재미있으면서도 매혹적이었다. 시골 아이가 처음 도시에 와서 맛본 사탕 같았다고나 할까? 그동안 금지되어 있던 달콤한 맛에 빠져 탐닉하게 되는…….

남녀 쌍둥이는 상피 붙는다고 하며 손자는 귀해 하지만 손녀인 여주인 공에게는 중요를 숨기지 않는 할머니, 그에 대한 강박으로 서둘러 순결을 버리고자 하는 주인공 남매, 전쟁 후 양공주 장사로 돈을 벌기 시작한 어머니와 왜소해진 아버지의 기이한 부부 관계 등 건강하지 않은 우리네

삶의 속살을 내밀하게 펼쳐 내고 있었다.

자신을 포함해 할머니와 엄마, 아버지, 이모, 오빠 등 가족들의 행위와 내면에 깃들어 있는 거짓과 위선을 속속들이 간파하는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인간상과 관계들을 구경하게 되는 것이었다. 언니와 형부의 계산적인 관계, 아버지의 여자, 엄마의 외로움, 심지어 할머니의 성적인 상상력까지, 포장을 걷어 낸 인간의 속내는 추잡했고 그것을 직시하는 작가의 시선은 정확하고 예리했다.

그 후 박완서라는 이름은 내 가슴속에 묵직하게 닻을 드리우게 되었다.

## 2. 위안과 치유로서의 소설

그 뒤로 선생은 재미있으면서도 문제의식을 담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세상에 내보냈다. 일흔이 넘어서도 필력이 쇠하지 않았고 세상을 뜨기 얼마 전 산문집을 출간할 정도였다.

대표작을 꼽으려 해도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독자와 평단의 사랑을 받았다. <휘청거리는 오후>로 결혼에 관한 당시 세태를 형상화했고, <살아 있는 날의 시작>을 필두로 <서 있는 여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등에서는 여성의 문제를 여성 중심적 시각에서 그려 내 여성 문학에 대한 논의를 전면에 부각시키기도 했다. <닮은 방들>, <지렁이 울음소리>, <도둑맞은 가난> 등에서는 중산층의 획일성과 속물성을 보여 주고, <엄마의 말뚝>, <그 많던 싱이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등에서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고향을 떠나온 후의 삶과 행복했던 유년의 추억을 함께 버무려 냈다.

선생의 소설이 6·25 때 겪었던 억울함과 분노의 경험을 토해 내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때 입은 상처는 60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해 천안함 사태가 일어났을 때 선생은 6·25가 나던 해와 같은 경인년이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

낀다.

금년은 또 경인년이다. 나에게는 그냥 경인년이 아니라, 또 경인년이고 또 경인이기 때문에 내 생전에 또 전쟁을 겪게 될까 봐 두려운 것이다. 6·25가 난 해도 경인년이었으니 꽃다운 20세에 6·25전쟁을 겪고 어렵게 살아남아 그해가 환갑을 맞는 것까지 봤으니 내 나이가 새삼 징그럽다. 더 지겨운 건 육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물 줄 모르고 도지는 내 안의 상처이다. 노구(老嫗)지만 그 안의 상처는 아직도 청춘이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에서

60년이 지나도 아물 줄 모르고 도지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해 선생은 6·25 때 겪은 추위와 굶주림, 불안과 분노에 대한 기억이 너무도 생생해서 오히려 현실적이고 현재 누리고 있는 소비 사회의 온갖 풍요하고 현란한 현상들이 꿈만 같을 정도라고 고백한다.(<나는 다만 바퀴 없는 이들의 편이다> 중)

그래서 선생에게 소설은 억울함과 죄의식의 토로이며 위안의 도구이다. 오빠를 잃은 상처를 가슴에 묻고 “그들의 고통,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외치고 싶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여자의 외침이며 “누가 들어주건 말건 외치지 못하면 억울한 죽음을 암매장한 것 같은 죄의식을 생전 못 벗어날 것 같았”던 여자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그리고 소설을 쓰면서 쓰는 이와 읽는 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위안과 치유의 힘을 발견한다.

그러나 선생은 또다시 큰 아픔을 겪는다. 1988년 남편을 잃은 후 석 달 만에 또 외아들을 잃은 것이다. 남편을 잃고 극도의 무력감에 빠져 있다가 아들마저 잃고는 “제발 꿈이어라, 방을 해매며 온몸을 벽에 부딪치는 난동도 부려 보았지만 악몽은 깨어나지지 않았다.”, “슬픔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수치심이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벌을 주셨나 항의도 해 보고, 나도 아들 곁으로 데려가 달라고 처절하게 기도도 해 보았다.”라고 당시 심경을 밝히고 있다.(<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 중)

이 참치의 고통도 소설로 승화되어 나타나는데, ‘통곡 대신 미친 듯이  
끄적거린’ 것이 <한 말씀만 하소서>(1990년 8월부터 1년간 연재)이며 조  
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1993)을 발표한다.  
<한 말씀만 하소서>가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과 세상에 대한 분노, 신  
을 향한 저주, 이를 감내하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일기라면, <나  
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에서는 1980년대 어두운 현실로 인해 아들을 잃  
은 어머니의 의식 변화를 그리고 있다.

### 3. 가장 나중 남은 것, 공감과 치유의 눈물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이란 제목은 김현승의 시 <눈물>의 한 구  
절을 따온 것이다.

더러는/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드리라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듦을 보시고/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프롤로그처럼 작품의 모두에 놓여 있는 이 시로 인해 이 소설이 눈물  
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눈물일까?

80년대 깜깜했던 시대, 시위 중 쇠 파이프에 맞아 죽음을 맞은 대학생  
의 어머니가 주인공이다. 손위 동서와의 전화 통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  
어 이웃집 여자의 신세 한탄을 바로 옆에서 듣는 것처럼 생생하다. 아들  
의 죽음 앞에서 주인공이 느꼈을 억울함과 비통함은 말할 수 없이 절절  
했겠으나 이 작품에서는 죽음 이후 그녀가 겪는 의식의 변화에 더 중점

을 둔다. 아들이 죽은 지 7년이 넘은 시점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1980년대 어두웠던 사회 현실과 손위 동서, 친구와의 관계 등 중년 여성의 일상적 삶도 함께 녹여 낸다.

아들을 잃은 뒤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그때까지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해지고, 하나도 안 중요하게 여겨 온 것이 중요해진 거”다. 곧 “전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했는데 이젠 내가 보고 느끼는 내가 더 중요”하며 “전엔 장만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젠 버리는 게 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찰하게 하는 이 변화는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전에는 형체가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 후엔 아니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온종일 쫓은 적도 있어요. 아녜요. 육체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구요. 그건 나한테는 너무 거창해요. 장미꽃과 향기의 문제예요. 장미꽃은 저기 있는데 향기는 온 방 안에 있다. 향기는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 걸까? 고작 그 정도예요.

“물건은 분명히 하난데 두 가지 방법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행운목에 꽃이 펴 온 집 안이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 소꼬리를 끊이다가 태워서 버렸는데도 온 집 안에 고약한 냄새가 가득 남아 있을 때, 확인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아들의 존재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음을 고백한다. 외출에서 돌아와 집 안에 아무도 없으면 “청환아, 에미 왔다.”라고 하며 아들에게 말을 거는데, 그럴 때는 집 구석구석이 아들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그 애 안에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므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지할 수 있음을 감동적으로 보여 준다.

한편, 주인공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견디는 모습은 눈물겨우면서도 상당히 이성적이다.

처음에는 “그놈의 쇠 파이프가 눈이 멀어도 분수가 있지 앞장선 열렬한 투사들 다 제쳐 놓고 왜 하필 우리 칭환이었을까.” 하는 마음에 ‘미치게 억울’했으나 ‘죽음은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아들이 죽은 후 민가협 엄마들을 따라 민주 투사 공판에도 가고 시위 현장을 따라다닌 행동을 스스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죽음이란 ‘철저하게 개개의 것’이라는 사실이 무서워 ‘집단적인 열정 속으로’ 훑쓸려 피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또 자신이 힘들어하는 것을 남에게 들기기 싫어해 평정을 가장한다. 실상은 ‘무거운 수레를 끄는 것처럼’ 고통스러운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도록 ‘눈물겨운 노력’을 해 온 것이다. 견딜 수 없을 정도에 이르면 은하게 주문을 외면서 울음을 자제했는데, 이처럼 ‘기를 쓰고’ 꾸며온 꿋꿋함이 일시에 무너지는 경우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것은 교통사고로 뇌와 척추를 다치고 하반신 마비에 치매까지 온 아들을 돌보고 있는 친구의 집에서 일어난다. 아들을 향해 ‘아이구 이 웬수, 저 놈의 대천지 웬수’, ‘어서 쳐먹고 뛰져라’ 말끝마다 욕을 달고 오랜 병구완으로 ‘파파 할머니’가 되어 있는 친구의 모습은 ‘지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폐하다.

그러나 친구는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꼴’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 꿋꿋하게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주인공과 달리, “내가 이 웬수덩어리 때문에 제명에 못 죽어.”, “아이고, 하느님,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말하고 싶은 대로 내뱉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악담만 남은 듯한 거친 말투와 행동 이면에 ‘씩씩하고도 부드러운 자애’가 숨어 있으며 아무 의식 없이 흐리멍텅해 보였던 환자의 눈 역시 ‘신뢰와 평안감의 극치’의 표현임을 깨닫게 된다. 잠시도 쉬지 않고 입을 놀리면서도 환자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마사지

해 주는 친구를 보며 주인공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실체’가 부러워 울음이 복반친다. 은하게 주문조차 막지 못해 터져 나오는 울음을 통해 그녀는 비로소 ‘기를 쓰고 꾸민 자신’으로부터 놓여 난 것 같은 해방감을 느끼고 그 후로는 ‘울고 싶을 때 우는 낙으로’ 살고 있다.

즉 ‘막혔던 울음’이 터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꾸며 왔던 지난 세월이 모두 함께 녹아 떠내려가게 된 것이다. 단단하게 뭉친 응어리를 녹이고 슬픔과 한을 흘려보냄으로써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눈물의 힘을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하겠다. 슬픔을 슬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눈물의 힘은 늘 ‘절벽 같은 침묵과 잔뜩 꾸민 목소리’로 일관했던 형님도 움직 이게 한다. 소설 끝에서 형님이 울고 있다는 것은 눈물로 이루는 공감과 치유의장을 보여 주는 것이다.

#### ※ 덧붙이기

선생이 가신 후 새삼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다. 주인공이 집에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순간 집 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망연해하는 장면이다.

기억이 지워졌는데 어떻게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나 요상하게 춤추는 불빛들이나 다들 실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환상이다 싶었어요. 건물이고 차들이고 형체는 지워지고 거기서 내뿜는 불빛만이 서로 얹히고 설키는 게 마치 물체들의 혼령이 너울너울 자유롭게 교감하는 것 같더라구요. 마음이 편안하고도 슬펐어요. 세상을 하직하면서 한평생의 헛되고 헛됨을 돌아다보는 기분이 그런 거 아닐까요.

어디선가, 선생님이 편안하면서도 슬픈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다.

선생님,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